

心身同一論에 대한 論評(2)

金麗壽

(서울대)

1.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유물론의 강점과 지속력은 일차적으로 자연과학과의 동맹관계에 있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학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 생각되어 오던 정신현상도 자연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성립된다. 철학사에 있어서 유물론의 전성기가 자연과학의 전성기와 일치하여 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물리학이 모든 다른 과학들이 환원될 수 있는 기초 과학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유물론이 정신현상의 본질을 규명코자 하는 심리철학의 주제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유물론의 자연과학적 배경은 관념론(Idealism)이나 실재론(Realism)의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 주는 독립된 논리, 인식론 또는 언어상의 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물론 이외의 어떤 이론도 유물론자에게는 불가사의하다. 따라서 유물론자들의 논증적 전략은 유물론을 논박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여러가지 논거들을 반박하는 방어적 부분과, 유물론을 수락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이론적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는 전진적 부분으로 구성된다.

2.1 유물론 논증의 방어적 부분의 핵심은 물론 정신과 물질이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실재론과의 대결이다. 정신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은 구분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자가 후자로 환원될 수 없음이 증명된다면, 유물론은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참된 이론이 될 수 없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실재론을 뒷받침하는 몇 개의 고전적 논거가

있다.

2.11 언어적 논증 :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따위의 정신적 현상에만 적용될 수 있고, 물리적 현상에는 적용될 수 없는 언어적 표현들이 있다.

2.112 공간성의 논증 : 물리적 현실에 대하여는 공간상의 위치가 부여 될 수 있는 반면, 정신적 현상은 공간화 할 수 없다.

2.113 인식론적 논증 : 정신적 현상은 그 체험의 주체만이 인지할 수 있는 私的인 것인 반면, 물리적 현상은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公的인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수정될 수 있으나, 정신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2.114 현상학적 논증 : 물리적 현상은 실재하는 대상들로 구성되나, 정신적 현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대상이 반드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2.115 창조성의 논증 :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기계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인간의 정신, 특히 인간의 이성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반성적이고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2 위와 같은 실재론의 논증들에 대한 유물론의 반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유물론의 반증은 모두가 자연과학의 업적에서 傳導된 파생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물론의 반론은 모두가 유물론의 참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의 난증은 명백하게 PE TITIO PRINCIPII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물론 논증의 방어적 부분은 이를 최대한으로 평가하더라도 실재론과의 대결에서 무승부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유물론 논증의 전진적 부분의 핵심은 유물론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인간의 정신생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물론의 수락에 있어서의 이론적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은 이제,

㉞ 정신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은 각각 다른 별개의 현상들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며, 그 현상의 기본성격은 물리적이라는 점과,

㉟ 이와 같은 동일성의 테두리 안에서 2. 111~2. 115 에서 제시된 논점

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3. 1 소홍열교수께서 다루고 있는 김재권교수의 심신동일론(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은 유물론의 긴 역사에서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형태의 이론중의 하나로서 유물론 논증의 전진적 부분(3 ㉞㉟)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개시키고 있다.

심신동일론이 물론 반드시 유물론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버클리의 관념론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동일론은 관념론의 테두리 속에서도 가능한 이론이다. 그러나 현대적 동일론은 사실상 대부분 유물론자(또는 물리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으며, 김재권교수의 심신동일론도 그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물리주의적 일원론(Physicalist Monism, p. 13)이다.

3. 2 소교수의 논술에 따르면, 김재권교수의 심신동일론의 기본적 착상은 J. J. C. Smart 나 Feyerabend 와는 달리 동일론을 언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존재론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p.14). 이러한 착상에 따라 정신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을 동일한 event로 보면서 event의 구성요소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통하여 정신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의 구분을 설명한다.

하나의 event는 속성(property)과 시간(time) 그리고 장소(place) 또는 개체(particular)라는 세가지 요소로서 구성된다. 심신동일론의 기본적 명제는 한 개인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어떤 물리적 상태에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의 event는 그 시간과 개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속성에 대하여는 심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p. 16)으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독립적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물리적 속성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심리적 속성은 직접적 의식에 의하여 알려진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실은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소교수 논술의 핵심적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구별했을 때 내가 어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므로 심리적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 상태(Brain state)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후자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도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p.16)

이 인용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 이것은〔심리적 상태〕 어떤 물리적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라는 논증상의 전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3. 3 소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김재권교수의 논술이 명백히 하고 있듯이 심신동일론의 핵심은, 첫째로, 정신적 현상과 물리적 현상의 동일성은 identity of indiscernibles의 논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엄격한 의미의 동일성이어야 하며, 둘째로, 이러한 동일성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적 현상에 대한 독립적 규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번 요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2. 111-2. 115에서 지적된 논점들(적어도 이들 중에서 ‘완강’한 것들)을 심신동일론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직접적 의식과 공간성이 각기 정신적 속성과 물질적 속성으로 규정되어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심신동일론은 이들 서로 구별되는 속성들이 동시에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성의 개념은 철학사상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두 개의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현상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非樣態的 속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속성으로서의 공간성과 심리적 속성으로서의 직접적 의식은 분명히 서로 다른 비양태적 속성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비양태적 속성을 가진 두 개의 현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심리적 상태〕어떤 물리적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 두 개의 속성은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전제의 타당성은 심신동일론이 증명해 주어야 할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3. 4 소교수는 심신동일론이 주장하는 동일성을 비유하여 한 물체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A라고 하자)와 그 물체의 분자운동 에너지가 커진 상태(B)가 두가지 다른 속성들을 가진 상태들이지만 사실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p.15). 그러나 A와 B의 동일성은 엄격한 의미의 동일성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A와 B는 그 속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운동의 유무에 따라)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현상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이론적 동일성(Theoretical identity)은 정신적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물리적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양자의 일치관계에 대한 주장은 될 수 있지만, 심실동일론이 요구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될 수 없다.

소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일치관계는 Interactionism 이나 Double-Aspect Theory를 옹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심실동일론은 모든 형태의 유물론이 그렇듯이 자연과학의 업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경험적 이론이다. 그러나 이론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哲學的 이론인 한, 논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경험적 지식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논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종류의 과학적 지식이 이러한 논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도 명백치가 않다.